

BASF-Dow, H₂O₂-PO 30만톤 합작!

부산물 제로 코스트 절감 ... 미국 · 유럽 유력 2007년 양산체제 돌입

BASF 및 Dow Chemical이 합작으로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미국 또는 유럽에 대규모 PO(Propylene Oxide)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BASF와 Dow는 2002년 여름 새로운 프로세스 기술을 협력 ·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, 산화제(Oxidizing Agent)로 과산화수소(Hydrogen Peroxide)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.

PO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30만톤에 달할 전망이며 2007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. PO 플랜트는 미국 및 유럽 지역의 BASF 및 Dow의 공동소유 공장부지에 건설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신 프로세스를 채용하면 부산물 없이 PO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프로세스를 사용했을 때 보다 생산 코스트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.

BASF와 Dow는 2003년 말까지 Pilot 플랜트 시험가동을 마친 후 세계 최대규모의 PO 플랜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3/09/09>